

드디어 아브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목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2 장입니다. 창세기 읽기 스물 네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하 제가 오늘 스물 세 번째 읽기 마지막 단락에서 아브람 그 설화 전승 아브람 족장 이야기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족장 이야기에서 어떤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를 이야기하면서 떠올랐던 거예요. 하란이거든요.

그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란이에요. 갈대아 우르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하란까지 갔습니다. 여기는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그 며느리 사라와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에서 살다가 255세가 돼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4번 읽기에서는 아브람이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하란에는 그 아브람의 가족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란까지 왔던 아버지의 데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람과 그 부인과 조카 롯만 남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12장에서 보면 다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하란에는 아브람의 일가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물색하는데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자기 고향에 가서 찾아오라고 아브람이 자기 종에게 시킵니다. 종이 아브람의 고향으로 가서 친지 중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고향이라면 우르잖아요 거기에 자기 친척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그 가족들입니다. 나홀이요. 그렇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데라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란은 죽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갈 때 우르에 남아 있는 사람은 나홀이란 말입니다. 나홀이 자기 조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 그 가까운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하란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이삭에 아낀감, 이름이 리브가거든요.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리브가를 데려오게 돼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란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 지금 10장 끝에서 보면 11장 끝과 12장 앞

대목에 있는 걸 보면 하란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아브람의 종이 우르로 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란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데려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 혼자 데리고 하란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던 거죠. 나홀은 당연히 우르에 남아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뒷 부분까지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아요 하란입니다. 하란에 나홀이 왔어요. 근데 이 성서 기자는 그런 걸 자세하게 적지 않았습니다. 이 하란이 나홀의 성이라고도 불리고 갓단아람 이라고도 불립니다. 유프라라테스 강 유역이요. 유역이 아니라 상류죠 성서기자는 하란이나 우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 23번째 읽기 끝나고 24번째 읽기에서 창세기 뒷부분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우르에서 데라가 하란까지 갈 때 아브람과 하란과 롯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나홀 가족까지 데리고 갔던지 아니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람과 사래와 롯이 가나안의 온 다음에 나홀 가족들이 하란으로 간 건지 둘 중 하네요 아브람의 친족들은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에서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서 기자가 어제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게 제가 그렇게 유추할 뿐이지 왜 성서 기자가 하란과 우르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더 복잡했나요? 자 일단 저로서는 정리가 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번째 본격 아브람 시대가 열립니다. 12장을 쭉 읽겠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볼까 하다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도 나가고 중요한 데는 좀 자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1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런 정도 표현은 갈대아 우르를 전제하고 하는 말로 들려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미 아브람은 하란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전승이에요. 서로 다른 전승들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혼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집될 때 이게 교정이 되지 않고 서로 있었던 전승들이 그냥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유명한 구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 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주께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는 않은 거죠.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나라까지 왔고 거기서 세겜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우린 조상 대대로 여기 살았다 그래서 우리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분쟁이 그치질 않네요. 같이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그들의 기구하는 역사가 거기 숨어 있는 거죠. 너무 힘든 역사를 살면 속에 분노가 있고요 적개심도 있고요 더 강하게 자기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생김새가 다른가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같은 지역에 어울려서 살았다면 성경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땅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살면 좋겠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여기서 벰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쪽은 벰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7절부터도 아브람이 다른 지역에 갔다 오는 이야기 나오는데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것은 아브람의 이동경로라는 제목의 지도예요. 우르는 똑같죠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우르에서 하란 까지는 아버지의 데라를 따라왔습니다. 이 하란 성이 나홀의 성이라고도 불러요. 2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나홀에 성, 그리



고 밧단아람 이라고도 부릅니다. 좀 넓은 지역을 말할 때는 밧단아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도시는 하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영어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는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이름이 예를 들자면 나는 몇년도에 경상북도로 이사를 갔다 하는 말하고 나는 몇 년도에 경주로 이사갔다 하는 말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또 같은 말이기도 해요. 경주도 경상북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밧단아람 28장 2절에 나오는 용어와 하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개념의 차이지 같은 지역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란에서 살다가 칠십오세 될 때 아브람이 아버지가 죽고 조카 롯과 아내만 내리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바로 위에서 세겜이 나오죠.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의 이르니 여기에 벤엘이 나오죠.** 여기서 사해부분이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른 다음에 밑으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옆에 벤엘이 있어요. 세겜이 있고. 세겜에 왔다가 세겜 땅에 거주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벤엘 동쪽 산으로 옮겨 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벤엘이 보이시죠. 동쪽은 아이 성, 모세의 뒤를 이어 40년 광야 횡단을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대표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 가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밑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강 안 건너고 우회를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예요.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서 왼편 팔레스타인 왼쪽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하는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두 성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에피소드도 많이 있죠. 주일학교때 재밌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 성 하나가 이제 아이성이죠. 먼저 있었던 게 여리고 고요. 여리고 아이 성입니다. 지금 그 아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저쪽입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도 나오죠. 요게 아브람의 그 거주지에 대한 선언 지도입니다. 우르 하란 가나안 세겜 베델 헤브론 그리고 이제 애굽까지 갔다 와요.

그런 환경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애굽까지 갑니다. 그게 왜 갔냐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이유는 대개 흉년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비교적 풍족했던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뭐 이집트가 조금 우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집트가 대단하죠. 나일강 유역에 기름진 땅에 곡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당시는 곡식이 많으면 부자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야곱도 그렇고 애굽으로 많이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애굽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결국은 요셉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 야곱 자식들을 비롯해서 손자들까지 70여명이 몽땅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엑소더스 하게 되잖아요. 다 이제 애굽 관계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애굽

문명과 연관 되고 바빌론 문명과 연관 됩니다.

그리고 모세 전승에 따르면 미디안 광야 문명 종교의 영향도 받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하는데 미디안 종교의 위대한 종교의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고대 이스라엘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될 때는 마다 가요 내 여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브람에게는 두 번이나 있었나 이삭도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서로 다른 전승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리되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가 아브람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 똑같이 있었다고 한 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전승이 있었는데 그게 각각 저마다 아브람 이삭에게 따로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혈통이 쪽 이어진 걸로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뭐 그건 그런 거 아닌 거죠. 각각 아브람 전승이 따로 있었고 이삭 전승이 따로 있었고 야곱전승이 따로 있었습니다. 요셉 전승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족장 설화에는 네 가지 전승이 있는 겁니다. 설화라고도 하고 전승기라고 돼요. 아브람 전승, 이삭 전승, 야곱 전승, 요셉 전승이에요. 각각 다른 거 했었는데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편입한 사람이 뭐 할아버지 뭐 누가 아버지 아들 뭐 손자 이렇게 혈통적으로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으로도 중복된 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울까 싶어서 누이라고 숨겨 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안 돼 대장부로서는 하지 못할 태도를 취한 거죠.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야곱 시절에는 아주 큰 기근이 있었고 7 년 동안,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직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면 보존되리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킵니다.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입니다. 파라오라고 보통하자. 시저가 로마 황제 이름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 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 하므로 자기 후처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상을 했을 텐데도 아브람이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용기없는 사람인 거죠. 아브람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시도했을 때는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

만 곳곳에서 아주 그 졸장부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아브람은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라 아브람이 아내 사라를 취 갖고 큰 부를 얻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실제 내막을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뭐 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자동적으로 내린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속 사연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아브람이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여기서 용케 그 위기를 모면한 거네요.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좀 깔끔하진 않습니다. 느낌이 확 좋은 않아요. 그 표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브람 보다는 바로가 더 신사적 이네요. 만약에 바로가 신사적이지 않았다면 저 아브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재앙이 내렸다고 하는 게 뭘 지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이 와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으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논리적으로 좀 말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성서 기자도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해 줍니까? 아브람 보다는 바로가 더 젠틀했다 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서 아내로 삼게 했는데 이미 아내로 삼았다는 건가요 아내로 삼으려고 하게 위험에 빠지게 했냐 그런 뜻인가요 이미 바로의 아내가 돼 버린 건가요 근데 크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더 돌려서 그리고 재산도 충분히 주면서 올려 보낸 걸까요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 위험을 모면하려고 애썼던 아브람의 치졸한 태도마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르에서 하란 까지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75세에 가나안으로 내려 왔습니다. 세겜에 머물렀고요. 왼쪽에 베엘이 있고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그것도 유명한데 애굽까지 잠시 다녀 온 일이 아브람 이야기에 있습니다.

조금씩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 창세기의 흐름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조와 그리고 전 인류 보편적 역사로부터 한 민족의 조상인 아브람으로 초점을 옮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물과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는 과정이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